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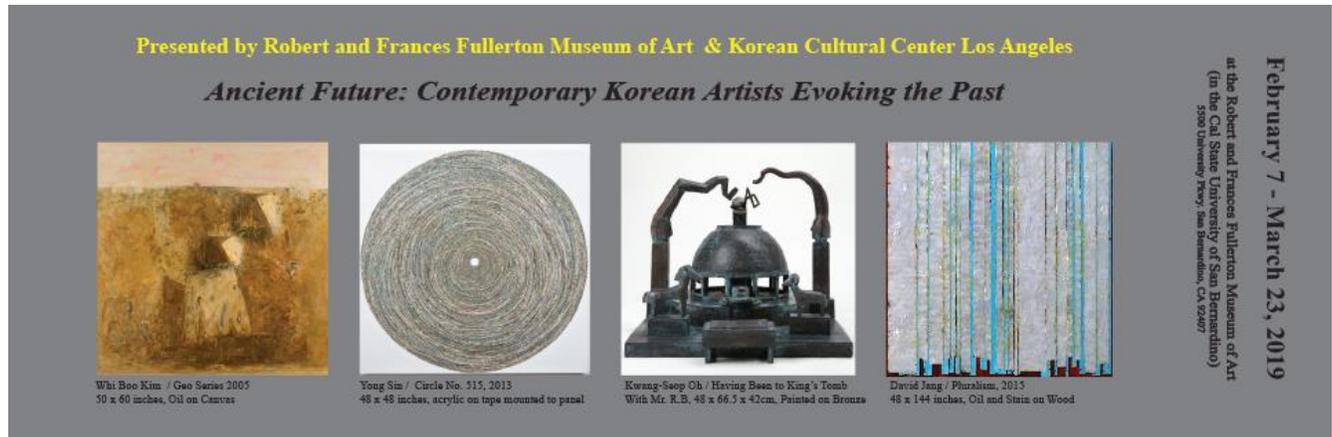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9. 1.30(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미 주류 뮤지엄과 함께 하는 특별 기획 전시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

“고대 천년왕국 신라를 만나다”

- ▶ 전시명 : 오래된 미래: 고대 신라토기와 한국 현대미술의 만남
Ancient Future: Contemporary Korean Artists Evoking the Past
- ▶ 전시기간 : 2019.2.7(목) – 3.23(토)
- ▶ 개막식 : 2019.2.7(목) 18:00
- ▶ 장 소 : Robert and Frances Fullerton Museum of Art
in Cal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5500 University Pkwy. San Bernardino, CA 92407
- ▶ 초대작가 : 김휘부, 영신, 오광섭, 데이비드 장
- ▶ 자세한 정보 : raffma.csusb.edu / www.kccla.org
- ▶ 불임 : 사진자료 각 1부
-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RFFMA Eva Kirsh 909-537-5493 ekirsch@csusb.edu
- ▶ 전시장 개장 : 월-수 10:00 – 17:00 / 목 12:00 – 20:00 / 토 10:00 – 17:00
금,일 Closed

LA한국문화원은 미주류뮤지움과의 교류전시 일환으로 Robert and Frances Fullerton Museum of Art(RFFMA)와 함께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 특별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에 소재한 RAFFMA에서 2019.2.7(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3.23 (토)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개막식이 열리는 당일 5:30 pm에는 RFFMA 관장 Eva Kirsch가 소개하는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 투어’가 있을 예정이다. (Eva Kirsch 909-537-5493 ekirsch@csusb.edu)



2018년에 개최하였던 토랜스뮤지움 (Torrance Museum)의 “대박, 슈퍼 쿨”, 그리고 서든유타뮤지움 (Southern Utah Museum)의 “한국을 만나다” 등의 전시가 해당 뮤지움에서 처음으로 한국미술을 전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RFFMA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형식의 한국 미술 전시 또한 개관 이래 처음이다.

RAFFMA 관장인 에바 커쉬(Eva Kirsch)와 함께 기획한 “오래된 미래”는 RFFMA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라시대 토기와, 한국 현대미술 작가 4인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한국 고대미술과 한국 현대미술의 접목을 바로 눈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뜻깊고 흔치 않은 전시회가 될 것이다. 한국 고대와 현대 사이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오래된 미래"의 시간 여행에는 재미작가 김휘부, 영 신, 데이비드 장을 비롯하여 한국 조각가 오광섭이 참여한다.



영 신
Circle No. 515, 48x48 inches



데이비드 장
Pluralism, 2015



김휘부
Geo Series 2005
50x60 inches



오광섭
Having Been to King's Tomb
48 x 66.5 x 42 cm

신라 토기는 자연의 모습을 닮았다. 찍어낸 듯 정교하고 세밀하지 않지만 그 기품있는 실루엣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라 토기는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차가운 정밀함보다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세부적인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이상억, 2008, p. 98)”을 우선하는 작품 세계가 가장 잘 나타난 미술품이다. 신라 토기는 솔직하고 편안하면서도 조화롭고 단아하며 기품이 있다. 자연이 만들어 낸 자연의 한 조각이다. 표면에 더해진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그 소박함으로 두드러짐이 없다. 전시된 신라 토기에게서 정적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 작품들에게서는 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과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는 고대 토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서로 다르지만 거름이 없어 소란스럽지 않고, 같지만 반복됨

이 없어 무료함이 없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천 년이 넘는 그 오랜 잠에서 깨어난 고대 신라 토기들과 21세기 한국 현대미술 작품들의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영신의 셀 수 없는 미세한 조각과 색의 반복은 마치 시작과 끝이 없는 영겁의 시간을 확인하게 하고, 김휘부의 다양한 소재의 조화로 빛어진 캔버스 안의 부조는 시간 속의 많은 사연을 이야기한다. 또한, 데이비드 장의 움직이는 듯한 오묘한 색의 프리즘은 시간의 변화 속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오광섭의 기억의 형상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켜 준다.

이번 전시회는 뚜렷한 작품세계를 가진 한국 현대미술 작가 4인의 작품과 한국 고대미술이 “오래된 미래”라는 조합을 통해 한국 미술의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과 더 나아가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영원을 꿈꾸던 고대 왕국의 소망을 영감으로, 도전으로 재해석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 4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매우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Robert and Frances Fullerton Museum of Art (RAFFMA)는 샌버나디노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에 속해 있다. (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 대학은 23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캠퍼스 중의 하나이다. 이 대학에는 문과대학 소속 외국어학과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1996년에 개관한 RAFFMA (Robert and Frances Fullerton Museum of Art)는 American Alliance of Museums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미술 박물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을 받았다. 게티(Getty) 박물관이 참여한 그리스 유물전,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페트리 (Petrie) 박물관이 참여한 이집트 유물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미술 전시회, 미술사 강좌 및 행사를 통해 인랜드의 문화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영구 소장품으로 다수의 이집트, 아시아, 아프리카 유물이 있으며 이 중 이집트 유물은 영구 전시되어 있다. /끝/